

## 살면서 생각하는 11가지 삶의 문제

### 철학적 사고 실험 통해 쉽게 설명



**세상과 생각을 여는...**

이브 보사르트 지음

우리에게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산다.

철학적 사고는 우리에게 많은 수수께끼를 제공한다. 때로는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면서 문제 의식을 일깨운다.

철학의 본질적인 힘은 질문을 하고 근거를 찾는 데 있다. 그러나 흔히 철학은 어렵다고 말한다. 논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나 개념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어렵게 여겨지는 삶의 문제를 철학사에서 주목받는 사고실험의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한 책이 나왔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카뮈의 '시시포스의 바위'를 통해 "행복은 삶의 궁극 목표인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 등과 같은 논의가 전개되는 식이다.

'철학과 사건의 만남'의 저자이자 방송 편집자였던 이브 보사르트가 펴낸 '세

상과 생각을 여는 철학자의 사고실험'은 삶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저자는 살면서 누구나 생각하게 되는 11가지의 문제를 철학적 사고실험을 통해 설명한다.

"행복을 주는 기계를 상상해보자. 당신은 이 기계에 연결되어 건강, 사랑, 친구, 섹스, 자유, 성공, 부, 명성 등 소망하는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은 완전히 행복할 것이다! 합정은 당신의 체험이 환상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 기계에 연결되자마자 모든 것을 실재하는 것으로 느낀다. 이제 당신은 실제의 삶과 체험할 소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책에서 제공된 사고실험은 2000년 넘게 철학의 도구였다. 그 도구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소크라테스에서 사르트르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철학자들은 정신적 실험을 시도했다. 그 목적은 도덕, 의식, 행복, 정의와 같은 주제들에 쉽고 친밀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다.

그러나 사고실험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여지를 남겨준다. 이 과정에서 독자들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 나서게 된다.

<북랩퍼스> 1만4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나는 피와 살을 가진 보통의 사내에 불과했소"



**정약용의 여인들**

최문희 지음

지난 2011년 '단설현'으로 제1회 혼불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최문희 작가가 신작 장편소설을 펴냈다. 소설은 시대를 넘어 현재까지도 귀감이 되는 정약용이라는 거대한 인물의 인간적인 면에 주목한다.

정약용은 올곧은 성정과 비상한 지혜를 지녔지만 열여덟 해를 유배지에서 보내며 깊은 절망과 외로움을 견뎌야 했던 비운의 천재다. 그의 곁에는 허물어짐 몸과 마음을 소리 없이 다독이고 지탱해준 여인 진

솔과 가장의 부재에도 집안을 단단히 지켜온 아내 해안이 있다. 소설은 다산의 마지막 생애를 휘감은 여인을 통해 애민정신으로 박제된 정약용을 "피와 살을 가진 보통의 사내"로 뜨겁게 되살려낸다.

소설에는 한 여인을 마음에 품게 된 선비의 내밀한 속내와 그를 향해 모든 것을 내어준 비천한 여인의 숨죽인 마음이 교차한다. 또한 새어나가는 남편의 마음을 붙잡고 온 사대부 여인의 애절한 심경도 녹아있다.

세밀화처럼 정교하게 그려낸 장면과 인간적 고뇌를 꼼꼼하게 풀어낸 문장은 완성도 높은 조각품이다.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 이야기는 정약용의 뜨거운 일대기를 넘어 애절한 고백에 다름없다.

<다산책방> 1만4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미각은 어떻게 인간 진화를 이끌어왔나

## 미각의 비밀

존 매쿼이드 지음



맛에 대한 감각은 다분히 감정적이다. 일테면 이런 것이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셨던 된장찌개, 졸업식날 동네 중국집에서 맛보았던 짜장면, 사랑하는 이와 여행지에서 먹었던 별미 등은 정서적인 이미지와 느낌을 환기한다.

물론 음식의 유래와 변천사는 당대 정치와 사회, 문화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오늘의 음식은 다양한 지구촌 식문화가 변화와 수용의 과정을 거쳐 이른 결과다.

일상에서 맛은 선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제다. 어떤 이는 아침에 쓰디 쓴 커피 한잔을 마시며 일과를 시작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맛집을 찾아 여행을 하는 불편을 마다하지 않는다. 매운맛에 매혹돼 수시로 매운 음식을 먹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맛은 실증적인 과학의 세계다. 폴리처상을 수상한 저널리스트 존 매쿼이드가 펴낸 '미각의 비밀'은 미각이 어떻게 인간 진화를 이끌어왔는지를 추적한다. 한마디로 맛에 대한 쓰고, 달고, 맵고, 감칠맛 나는 전기(傳記)다.

저자는 책을 쓰기 위해 주방과 슈퍼마켓, 농장, 레스토랑, 식품회사, 과학 연구실을 방문하고 탐사했다. 유전자학의 우리의 미각을 어떻게 빚어냈는지, 숨어 있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인간은 미각에 대한 유연성이 있어 생존하고 진화할 수 있었다.

맛 지각이 우리 몸 기관에 어떻게 파고드는지 주목한다. 이 과정에서 맛의 과학이 20세기에 폭발적으로 발전한 것은 "마음과 뇌와 몸 사이의 연결 관계 즉, 왜 나는 저 치즈버거를 꼭 먹거나 저 와인을 꼭 마셔야 한다고 생각할까? 같은 물음 자체를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인간에게는 모두 다섯 가지 미각이 있다.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감칠맛이 그것이다 (앞으로 지방 맛이 공인되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미각은 여섯 가지로 늘어난다). 이들 미각은 인간의 삶에 쾌감과 때로는 고통을 동반한 필요요소의 음영을 드리운다. 또한 삶을 아름답고도 빛내며 흥미 가득한 것으로 만들어왔다.

저자는 지구상에서 미각이 탄생하는 과정을 다섯 단계로 설명한다. 체계적으로 먹이를 잡아먹기 시작한 단계, 냄새를 통해 먹이를 사냥하게 된 단계, 맛이 뇌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갱신되고 형성되게 만든 단계, 시각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 단계, 불 사용으로 미각과 후각, 시각, 청각, 촉각이 향미 감각으로 합쳐지는 단계가 그것이다.

이 같은 과정은 인류의 진화에 따라 미각 또한 진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미각의 유연성을 지녔다는 의미다. 커피와 맥주의 쓴맛, 고추나 고추냉이의 매운맛 선호는 그만큼 미각이 발달해왔다는 것이다.

성공을 거둔 생물의 종은 공통적으로 환경에 잘 적응한다. 인류의 조상들이 살던 아프리카의 자연 환경은 현재와는 많이 달랐다. 강과 평원, 산봉우리가 널려 있던 저지대부터 고지대 킬리만자로산까지 다양한 지형이 펼쳐져 있었다. 변화가 많은 서식지를 돌아다니면서 인간은 살아가고 번성하는 방법을 배웠다.

대표적으로 쓴맛은 몸에 독소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생물학적 경보 시스템 일련에서 비롯됐다. 혀에 쓴 물질이 닿으면 뇌에 전기화학적 연쇄 반응이 일어나며 불쾌감을 준다. 이처럼 미각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몸을 통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준다.

"맛은 진화를 위한 추진력을, 그리고 최근에는 인간 문화와 사회를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추진력을 제공했다. 그것은 인간의 투쟁과 갈망과 실패가 씨앗이 되었다 다시 씨앗이 반복하는 일종의 서판이었다. 우리의 존재 자체와 인간성도 맛에 큰 빚을 졌으며, 맛은 많은 점에서 우리의 미래도 좌우한다."

<문학동네> 1만6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46년만에 복간된 오규원 시인의 첫 시집



**분명한 사건**

오규원 지음

시인 오규원(1941~2007)은 한국 현대사에서 첨예한 자의식을 지닌 문인으로 평가받는다. '시의 언어와 구조'의 문제를 누구보다 치열하게 탐구했던 그는 생전에 10권의 시집과 4권의 시론집·시 창작 이론서를 비롯한 30여 권의 저서를 통해 언어로 세계의 구조를 갱신하고자 했다.

오규원 시인의 10주기를 맞아 첫 시집 '분명한 사건'이 46년 만에 복간됐다. '문학과지성 시인선R'의 열한 번째 시집인 작품집에는 시인의 시적 존재가 여전한 현재형으로 살아 숨 쉰다. '분명한 사건'은 등단한 해를 전후로 7년간(1964~1971) 쓴 시들에서 30편을 추려 묶은 것으로, 출간 그해는 시인의 연대기에서 전기로 기록될 만한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다.

부친의 죽음, 이적, 김형·김병이 등 문지 그룹과 교류, 거주지 이전 등 개인적 측면에서 시적 지향에 영향을 미칠만한 일들과 마주한다.

<문학과지성사> 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대한민국 헌법 우리말로 쉽게 읽을 수 있게...



**내 손안에 헌법**

이오덕 지음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들이 헌법을 알고 지켜나가야 이루어진다." 헌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때보다 크다. 촛불 정국으로 떠오른 지금 시대에 이오덕 선생의 호소가 유난히 가슴 깊이 들러온다.

참 교육자이자 우리말 살리기와 바로 쓰기 운동을 벌인 고 이오덕 선생이 한

자말과 일본 말법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헌법을 우리말로 쉽게 읽을 수 있게 바로잡아 놓은 책 '내 손안에 헌법'이 출간됐다. 지금으로부터 열다섯 해 전에 쓴 글이다.

책 왼쪽 페이지는 이오덕 선생이 바로잡아 놓은 헌법을, 오른쪽 페이지는 헌법 원문을 실어 놓았다. 헌법 원문에는 선생이 다듬은 부분을 밑줄을 쳐 놓고 고친 글씨를 달아 놓았다. 바로잡아 놓은 헌법을 그대로 술술 읽어오 되고, 헌법 원문과 맞대 보며 볼 수도 있다. 읽다보면 헌법이 품은 큰 뜻이 환하게 보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헌법에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나비> 1만2500원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 대한골프협동조합과 함께 골프, 리조트 한번에 다 누리세요!!

**KGC**  
Korea Golf Coop  
**대한골프협동조합**

**회원가입 절차**

- \*신청서 작성 (팩스, 카톡, 문자 가능)
- \*년회비 (130,000원)

**회원가입 혜택**

- \*제휴 골프장 및 리조트 할인혜택
- \*제휴 골프용품 할인혜택
- \*국내, 해외 골프투어

**대한골프협동조합**

골프장 선불회원 컨설팅 사업

국내외 골프투어

지역사의 공헌사업

골프동호회 육성/골프장나무 지원

**KGC 대한골프협동조합**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8(치평동 890-12) ☎(062) 371-1800 · 010-6270-1879

**특허방수**

2중압박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지재 추천제품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의 특징

-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2/ 건축 내외장재 패턴디자이너 잔 덴디니와의 콜라보 디자인!
- 3/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냉기 차단

여름 실내온도: 3~5°C / 겨울 실내온도: 3~5°C

전기로 30~40% /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명예홍보이사 매티트 이영 후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www.ipalg.co.kr](http://www.ipalg.co.kr)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